

新派劇에 관한 一考察

金 元 重

<目 次>

I. 머리 말

젓먹이 살인사건, 월급날)

II. 본 론

IV. 마무리

<육월포 강도, 배나무집 딸,

I. 머리 말

서구(西歐)의 멜로드라마(melodrama)적인 신파극(新派劇)을 어떤 의미에 선 제일 먼저 논급(論及)해야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파극은 우리 현대연극사(現代演劇史)에 있어서의 효시(嚆矢)이기 때문이다. 1911년 임성구(林聖九)가 혁신단(革新團)이라는 극단(劇團)을 만들어 「불효천벌(不孝天罰)」이라는 요즘 말하자면 충효사상(忠孝思想)을 주제로 한 신파극을 공연한 이래 8.15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 현대연극의 근간(根幹)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요즘도 연극 뿐만 아니라 영화 TV 연속극까지 신파극의 잔재(殘滓)는 남아 있다.

신파극까지는 못 가더라도 신파조(調)라든가 신파이니 하는 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성의 특성 중의 하나인 한(恨)과 어울려 우리에게 무한한 공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신파극은 그 용어(用語) 자체와 더불어 일본에서 건너 왔고, 공연된 대부분이 일본 신파극의 번안물(翻案物)이었다. 그리고 신연극의 내용과 배역(配役)의 역할만 대충 알아 가지고 연기하는 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논술(論述)할 수 있겠으나 회목문학적인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論議)가 있을 수 없었다. 회목문학의 경계까지 갈 것 없이 대강의 극본(劇本)이나마 남겨 둔 것이 있어야만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인데 신파극의 경우 극본이 전무(全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저질 연극의 대명사처럼 대접받아 온 신파극이지만 극본만 남아 있었으면 회목문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Ⅱ. 본 론

현대 회극문학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간사랑(空間舍廊)에서 원로 연극배우 고설봉(高雪峰)씨를 초청하여 신파극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네 편의 신파극을 공연하고(1980, .5.31~6.23) 그 네 편의 작품을 극본으로 구성하여 남겼다는 데 회극문학의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다. 물론 원작(原作)이 없는 상태에서 재구성된 극본인만큼 이 극본을 가지고 작품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고증을 한 원로 연극인의 회고담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재구성된 네 편의 극본이 신파극의 초창기(1910년대)부터 1930년대 전성기 사이의 가장 인기 있었던 신파극을 설정하였고, 그 신파극의 극본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도 회극문학사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살펴 보는 것이다.

공간사랑에서 공연된 네 편의 작품, 즉 「육혈포강도(六穴砲強盜)」 「배나 무집 딸」 「젓먹이 살인사건」 「월급 날」을 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전에 연극 양식상(樣式上)의 특징을 먼저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사의 처리를 구찌다테(口建) 식으로 하였다는 점. ② 무대로 등퇴장(登退場) 시(時) 하나미찌(花道)를 이용하였다는 점. ③ 백열전등(白熱電燈)과 램프등을 조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④ 막(幕)의 개폐(開閉)신호로 딱딱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⑤ 무대 장치가 유치하였다는 점, ⑥ 남자 배우가 여자 배역인 온나가다(女形俳優)를 맡았다는 점, ⑦ 과장된 연기(over-action)를 일부러 하였다는 점, ⑧ 단장(團長)이 개막인사(開幕人事)를 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찌다테(口建)식이라는 것은 작품을 공연하는 데 일정한 극본이 없이 배우 자신이(혹은 작가) 구성한 극의 내용과 배역의 성격을 스스로 파악해서 상호간의 요령껏 —요령껏이란 다분히 말 재주나 말 주변에 의존하였다는 의미이다— 대사를 주고 받는 화술극(話術劇)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극이 구찌다테(口建)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초 일본식 무대 구조에 하나미찌(花道)를 내고 무대 후면에 흰 천(布)을 두르고 배경을 그려 붙였다. 조명은 물론 요즘에 비하면 엉망이었다. 밤은 광도 낮은 백열등으로 구별하였을 정도이다. 막을 올리면 극단의 단장이 먼저 나와 연극 내

용을 설명하는 등 개막인사를 한다. 폐막(閉幕) 때도 역시 단장의 극단 선전을 겸한 인사가 있다. 이럴 때 신파극에 감동한 관객들이 돈을 종이나 손수건에 싸서 던지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신파극의 주제랄까? 내용은 대개 군사극(軍事劇)이 많았고 탐정극(探偵劇) 제몽극(啓蒙劇) 의리인정극(義理人情劇) 가정비극(家庭悲劇) 등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의 신파극을 그대로 번안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번 공간사랑에서 상연한 첫번째의 신파극 「육혈포강도」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레퍼터리(repertory)였다. 전 7막으로 된 탐정극인데 그 당시 신문에 난 개요(概要) 기사를 보면 재미 있다.

강도 한 아이 육혈포를 가지고 흑 장남도 되었다가 신수도 되어 작경이 무쌍함으로 경찰서 순사 림성구가 육혈포강도 한창렬의 악행을 근심하여 글은 순사의 본분은 인민을 보호하라는 목덕인즉 몸이 부셔지더라도 이 강도를 잡으리라 하고 결심할 동시에 무한 근란을 갖고 그 강도를 만나 육혈포를 마켓것관은 괴이히 잠을 작정으로 방방곡곡이 도라다니다가 하교동에서 그 강도를 잡아서 민폐를 덜고 순사의 책임을 다함(매일신보(每日申報) 1912, 5, 23)

1912년 공연 당시에 혁신단 단장(革新團 團長) 임성구(林聖九)가 주인공인 신입순사역을 맡았던 것이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바탕으로 정의감(正義感)을 고취한 이 「육혈포강도」는 임성구 자신이 일본 신파극 「ヒストル強盜・清水定吉」를 직접 번안한 것이다. 제1막 도로(道路), 제2막 전당포(典當舖), 제3막 도로, 제4막 강도가(強盜家), 제5막 경찰서(警察署), 제6막 파출소(派出所), 제7막 교하(橋下) 등의 순서로 구성된 이 신파극이 극본이 앞에서 말한대로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사랑(空間舍廊)에서 상연한 이강열(李康烈)이 구성한 극본을 대상으로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이강열은 박진(朴珍) 구성의 「육혈포강도」와 원로연극인 고설봉(高雪峰)씨의 고증(考證)으로 이 「육혈포강도」를 재현(再現)시킨 것이다. 주요 등장인물은 육혈포강도, 전당포 주인, 그의 처(妻), 경부(警部), 형사(刑事), 신입순사(新入巡査) 등이다.

딱딱이를 딱 한 번 친다. 막(幕) 열 준비를 하라는 신호, 두 번째 딱 한 번 친다. 막 끝을 잡으라는 신호, 다음에 계속하여 친다. 이것은 끌고 가라는 것, 나중에 딱 한 번 치면 정지의 신호이다.

조명 F.O

밤

강도 등장 포스트

강도 :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왔구나. 그런데 오늘 밤에는 유달리 달이 밝구나.
아! 멋진 밤. 오늘은 약덕 고리태금업자인 이 전당포를 털어야겠다. 저독한 노
랭이다 돈은 많이 있겠지. (사이) 그러나 서둘러서는 안되지 만일을 생각해서
(품 속을 뒤져 육혈포를 꺼내 확인한다) 하하, 하, 너는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하는구나.」(품 속에 감춘다. 주위를 살피고 복면을 꺼내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조심해서 전당포 쪽으로 걸어간다. 앉아 있는 전당포 주인과 처)

주인 : 「하, 하, 하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었소.」

처 : 「그러지 말입니다.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그 박서방이 그렇게 어수룩한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콧 한 번 공갈을 치니까 꼼짝없이 집군서를 내 놓지 않
습니까?」

주인 : (처의 입을 막으며) 「허, 허 이 사람 큰일 내겠네,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후
서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당신은 항상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처 : 「듣기는 누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 한밤중에 어느 게 아들놈이 잠 안자고 다
닌답니까.」

주인 :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

처 : 「알았어요」

주인 : 「자, 이제 피곤하니 그만 잠시다.」

처 : 「그래요」 (자리에 눕는다)

강도 : 「꼼짝 말고 손 들어라」

처 : 「누구요.」

강도 : 「누구긴 누구야, 강도 나리가 오셨다.」

주인 : 「뭘 강도! (허둥대며) 살려달 주십시오.」

강도 : 「살려 줄 더이니 순순히 내말을 들으려다.」

주인 : 「네, 뭣이든지 시키는대로 하겠나이다.」

강도 : 「있는대로 돈을 다 내 놓아라.」

주인 : 「돈은 한 문도……」

강도 : 「뭣이 돈이 없다고.」

주인 : 「네, 아들 녀석이 오늘 영동이에 흥기가 나서 탁탁 털어 의원에게 갖다 줬
읍니다.」

처 : 「그렇구 말구요. 지금 여기에는 맹진 한 닢 남지……」

강도 : (화가 나서) 「닥쳐, 누구를 한 살박이 좀 도둑으로 아느냐, 나를 봐라, 아
육혈포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육혈포강도의 범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다음 장(場)에 가서 경찰의 무능과 속수무책(束手無策) 상탈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형사(刑事)는 큰소리만 탕탕 치는 것이다. 결국 범인은 「있으나마나한 놈이라고」 경부(警部)에게 무시당 당하던 신입순사(新入巡查)가 잡게 되는 것이다. 왼손과 다리, 가슴에 두 발의 육혈포를 갖고 죽어 가면서 육혈포강도를 잡은 것이다.

순사 : (죽어 가며) 「주임님, 선배님, 저는 이것으로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제 한 목숨 바쳐서 여러 목숨의 위태로움을 방지한 공과 이 명예스러운 영광은 북부경찰서의 여러 분의 것입니다. (강도에게) 나는 비록 네 총알에 죽어 가지만 너는 아무쪼록 네 깃가를 꾸우치고 개과천선(改過遷善) 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경부와 형사들을 쳐다보며) 주임어른, 선배어른, 부디 안녕히 계…십…시…요. (죽는다)」

동시에 슬픈 대금(大筍) 음악소리가 들리고 경부와 형사, 거수 경례할 때 딱딱이 딱 하며 한 번 친다. 모든 등장인물이 동작을 고정시킨다. 다시 한번 딱 치면 딱이 달히는 것이다.

이 「육혈포강도」는 1930년대 동양극장(東洋劇場) 시절까지 가장 히트한 주요 신파극이었다.

다음 허영이 구성한 「배나무집 딸」은 원래 1930년대 신파극의 인기 레퍼터리로서 임선규(林仙圭)가 구성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즉 「홍도(紅桃)야 울지마라」와 비슷한 작품이다. 1911년에서 1930년까지는 일본 냄새 나는 신파극을 주로 공연하였다면 1930년에 들어 와서는 우리 냄새 나는 신파극을 모색 상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나무집 딸」은 그러한 신파극의 대표적인 레퍼터리이다.

어느 산간 벽지 한적한 농촌 산 밑 한 모퉁이에 한영수(韓英秀)와 영숙(英淑) 남매가 살고 있다. 영수(오빠)는 고학으로 서울 K대학을 나온 후 하향(下鄕)하여 농촌을 위해 6,7년간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관광차 이곳에 온 대학 후배를 만난다. 오래간만에 만난 이 학교 선후배(명수와 윤향(允鄕))들은 이곳 마을에서 며칠 묵게 된다. 그러는 동안 서울서 온 윤향은 시골 처녀 영숙이의 순진성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다. 서울 부자집 딸아들에게 시집 간 영숙이는 시어머니, 시누이 등의 질시(嫉視)와 학대(虐待)에 견디다 못해 2년만에 시골로 되돌아 오게 된다. 영숙은 고민이

고통에 못이겨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 후 윤향은 자신의 파탄과 된 결혼생활의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어 영숙이에게 용서를 빈다. 고운 마음씨의 영숙이는 결국 남편(윤향)에게 되돌아 간다는 해피 엔딩의 신파극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흥도는 기생이 되어 오빠 친구 영호와 결혼하여 시집식구의 모함에 파탄이 된 신파극이지만 「배나무집 딸」은 오빠의 대학 후배에게 시집 갔다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두 작품 속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대사가 많이 나온다.

「배나무집 딸」에서 시집에서 쫓겨 온 영숙이에게 오빠가.

영수: 「그렇지, 아냐 그제 너만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니 자나깨나 네 걱정을 많이 했어. 그리고 지나 간 27일날이 어머님 제사날이 있었어.」

영숙: 「나두 알아요.」

영수: 「해마다 너하고 같이 지내다가 한 2년동안 너 없이 나 혼자 지내니까. 퍼외롭더라.」

영숙: 「나도 그날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청안수를 떠 놓고 오빠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 그런데 오빠 혼자 사는 거야. 응! 너무 고생스럽지 않아」

영수: 「현재의 이 생활이 내게는 오히려 다행한지도 몰라. 고독해서 그렇지……언젠가는……나도……참 너 요새 신문 보느냐」

영숙: 「바빠서 며칠동안 못 봤어. 왜!」

영수: 「응, 강원도 두메 산골 어떤 곳에 두 남매가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운에 더서 부자집으로 시집 갔는데 그 후 한 2,3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무슨 불순한 관계가 발견되어 시집에서 내 쫓겨 났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

영숙: 「그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영수: 「나쁜 여자지? (별안간 영숙이를 붙잡고 소리 높여) 너두 그런 행동을 하여 쫓겨 왔지.」

영숙: 「아니예요」

영수: 「그런 행동을 하고 쫓겨 왔지」

영숙: 「아니예요」

영수: (확 밀친다. 영숙 마루 밑에 쓰러진다.)

영숙: (쓰러진 그대로 오빠의 무릎을 붙잡고) 「오빠, 저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예요., 저를 그런 여자로 봐요?? 저를 믿어 주세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예요.」

영수 (동생을 일으켜 앉히며) 「너만은 그런 여자가 이뉼 줄 안다. 내 동생인데……
우리 영숙인데……네가 그런……잘못했다. 오빠가 잘못했다.」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 단도(短刀)를 넣어가지고 급히 대문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영숙이의 시가(媿家)에 가서 따지려는 것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오빠 : (담배를 피우며) 「홍도야」

홍도 : 「예.」

오빠 : 「너 요전 번 어머님 제삿날 왜 안왔니, 혼자 진퇴를 올리면서 펍 울적한 마음이 들더라.」

홍도 : 「네 오빠, 오려고 했는데 별안간 시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시중을 들다 보니 늦어서 못 왔어요. 오빠가 기다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오빠 :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도 많이 기다리셨을게다.」

홍도 : 「오빠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태어났다 봐요.」

오빠 : 「홍도야.」

홍도 : 「네……」

오빠 : 「너 요즘 신문 더러 보니?」

홍도 : 「시집살이가 너무 바빠서……」

오빠 : 「홍도야, 내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구나」

홍도 : 「어떤 기사인데요.」

오빠 : 「강원도 어느 산골에 조실부모(早失父母) 한 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남매는 너무나도 서로를 아끼던 나머지 손목을 잡고 서울로 올라와 나이가 찬 그 누이 동생이 오라비를 두고 부자 집으로 시집을 갔더라.」

홍도 : 「어머나, 그것 참 잘 됐네요, 그래서요.」

오빠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을 그 누이 동생이 남편이 외국 유학 간 틈을 타서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더라.」

홍도 : 「저런 못된 년이 있나요.」

오빠 :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은 오라비에게 쫓겨 왔더라.」

홍도 : 「저런 못된 년, 그랬으면 칼을 물고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시퍼런 물에라도 빠져 죽을 일이지 그 착한 오빠에게로 쫓겨 오다니요.」

오빠 : 「홍도야, 만약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는 설마……」

홍도 : 「네,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자살이라도 하지 감히 뻔뻔스럽게 어떻게 오빠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나겠어요.」

8 嶺南語文學 (第7輯)

오빠 : 「오냐, 틀림없지? 그 말을 믿어도 되겠지?」

홍도 : 「천백 번 죽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했어요.」

오빠 : 「알겠다. 너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한 사발 떠 오나라, 얘기를 오래 했더니 목이 마르는구나」

홍도 : 「네」(퇴장)

오빠 : (책상 서랍에서 칼을 꺼내 허리춤에 감춘다.)

그리고 나서 홍도의 「시집 식구들을 모두 찢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하고 오빠는 나가려 하는 데 홍도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어머니요, 누이 동생이예요. 「오빠」하고 매달린다. 오빠는 누이 동생의 순정에 감동되어 「오냐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꾸나, 지하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두 남매는 행복해져야 한다.」면서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3막 4장의 「배나무집 딸」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아류(亞流)인 것이다. 1935년 동양극장이 개류(類)의 신파극이 대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젓먹이 살인사건」은 가정 비극으로써 1940년대의 신파극이다.

청빈한 관리생활로 아내와 아들의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죽게 한 주재소장(50세)은 어느 날 딸(선희·2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젓먹이 살인 사건을 접한다. 주재소장이 사건을 접수할 즈음에 소장의 집으로 범인인 김군자(40세·여자품팔이)가 나타난다. 여기서 그녀의 기막힌 사연이 펼쳐진다.

소장 : 「그런데, 그걸 왜 죽였어」

군자 : (큰소리로 운다.)

소장 : 「왜 이러는거야」

군자 : 「나리께서는 모르십니다.」

소장 : 「어째서?」

군자 : 「우리들 자식들은 살려 두는 것보다 죽여 주는 것이 되려 공덕(功德)입니다. 이 고히(苦海) 같은 세상을 맛 보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르고 죽게 해 주는 게 더 깊은 사랑인지도 모르죠.」

소장 : 「이 돈 게 아니냐.」

군자 : 「아뇨, 하지만 나리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나 쓰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팔자, 얼마나 불쌍합니까요?」

일제하(日帝下)의 비참한 한 동포의 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출산(出産)하는 날도 한나절 품팔이 나갈 정도로 가난한 여인. 「정말,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오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소장에게 사정을 한다. 소장과의 이야기 도중에 뇌빈혈로 쓰러지는 소동까지 일어난다. 소장은 딸의 간곡한 부탁과 군자의 너무나도 딱한 사정에 마음이 흔들렸으나 자신이 관리임을 깨닫고, 검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죽은 아내와 아들 생각에 심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킨다. 한편 살려 달라고 울부짖던 김군자도 마음을 돌이켜 죄값을 치르리라 결심하고 소장을 따라 경찰서로 가는 것이다. 마침 비가 내리자 소장은 우산을 자신은 쓰지 않고 김군자에게 씌여준다. 눈물 속에 인정(人情)의 꽃이 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막이 내리는 것이다.

「젓먹이 살인사건」이 가정 비극이라면 「월급날」은 가정희극이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흘 만에 실직당한 한 평일은 아내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이고 시내를 배회한다. 드디어 「월급날」이 닥쳐 고민에 빠져 있던 중 공원에서 친구(김철성)를 만나 하소연한다.

제1장 (어느 공원 오후 4시경 평일이 벤취에 앉아 있다. 저녁 노을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평일 : 「아—오늘도 이래로 저물어가는구나! 배는 고프고 몸은 오솔오솔 찬기가 도는군. 집에 가면 마누라가 따끈한 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을 차려 놓고 날 기다리겠지. 오늘은 월급날, 월급을 들지 않고는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는 신세야, 날은 지고 길은 멀고라더니 날두고 하는 소리군.」 (평일 긴 한숨을 쉰다. 이 때 회사원 친구가 온다. 철성이다. 잔걸음으로 평일 앞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철성을 만난 평일은 실직자의 신세타령을 실감(實感) 있게 들려내고 있다,

평일 : 「그러니 내 신세 말두 말게, 회사 미역국 먹은 이야길 새새떡 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매일 아침 9시전에 회사에 나갈 채비를 해서 집을 나와 저녁 5시엔 집에 들어가는 거야.」

철성 : 「그래 아침 9시부터 뭘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 일인데!」

평일 : 「종로나 명동엘 어슬렁 거리다 극장 구경도 하고 고궁에도 들어 가 보고 그 뿐인가, 날이나 굶은 날엔 정말 고생이 막심허이, 정치 없이 쏘다니니 꼭 상가 집 솟개 풀이지 뭐가? 처량해서 눈물이 날 지경일세.」

철성 : 「알, 그렇고 말고」

평일 : 「쏘다니자니 잔돈들은 들지 나중엔 무일푼이니니 점심을 먹나, 담배가 있나, 쪽북 거리는 뱃속에 냉수만 들이키고 5시까지 기다리자니……시제는 벌써 전 당포에 날리고 이집 저집 시계를 기웃거리자니 말 못할 사정일세.」(출격거린다)

친구의 딱한 사정에 달려 철성은 평일을 도와 주기로 약속하고 잘 아는 미곡상인을 만나 돈을 빌리려 한다. 미곡상인은 어쩌다 주인공 평일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평일의 아버지는 딱한 주인공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본인에게 직접 빌려 주겠다고 주인공(평일)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평일의 누이동생이자 철성이 약혼자인 청자에 의해 모든 사실이 탄로난다. 그러나 평일의 처와 아버지는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평일의 삼촌은 새로운 취적지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전 2장의 「월급날」은 끝나는 것이다. 짜장된 이야기이다 짜장된 발성(發聲)과 짜장된 연기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다.

Ⅲ. 마 무 리

현대 회곡문학에 있어서 신파극을 무조건 비격할 것이 아니라 연극양식(樣式)의 하나로 인정하고 극본(劇本)도 재구성하고 해서 회곡문학의 측면에서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옛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 되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신파극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